



HOME > 종단

[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 ① 한국불교 새 운동...천리길 대장정 시작

☞ 박봉영 기자 | 이경민 기자 | 🕒 승인 2021.10.01 10:06 | 📄 호수 3685 | 💬 댓글 0



삼보사찰 천리순례 10월1일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입재

불교신문이 '삼보사찰 천리순례' 동행 취재에 나섭니다. 송광사를 시작으로 해인사를 거쳐 통도사에 이르기까지 423km를 걷는 고단한 여정이지만 '자기 수행과 대중 화합'이라는 화두 아래 어제와는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는 매일이 될 것입니다. 걷기 조를 포함해 진행 및 지원 단까지 150여 명에 이르는 순례단은 매일 땀을 흘리며 걷고 물집으로 인한 통증과 싸웁니다. 제대로 씻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새벽 이슬, 한낮의 더위, 맨바닥 추위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힘으로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천리순례단입니다. 18일 간의 일정 동안 본지가 현장 소식을 매일 전합니다.



상월선원 결사의 세번째 프로젝트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장정이 10월1일 송광사에서 입재식을 갖고 첫 발을 내디뎠다.

한국불교를 바로잡고 승풍을 진작코자 했던 정혜결사 정신이 서린 송광사에 300여 명 사부대중이 모였다. 중생결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한국불교의 새 운동,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동참하기 위해 마음을 함께 모은 자리. 부처님께서 걸으신 전법과 포교의 길이 우리 땅에 살아있음을 직접 두 발로 확인하고 자기 수행과 대중 화합의 염원을 가슴에 담는 여정이 본격 시작됐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세 번째 프로젝트인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10월1일 조계총림 송광사 대웅전 앞 마당에서 입재식을 열고 부처님전에 상월선원 결사의 공덕을 전법의 빛으로 승화시키겠다 발원했다. 94명의 순례단을 대표해 비구 대표 우봉스님, 비구니 지혜스님, 우바이 이태경 씨, 우바새 정충래 동국대 이사는 고불문을 낭독하며 "이 길은 불교 중흥의 초석이 되는 길이며 국난 극복과 민생 회복을 염원하는 실천의 길임을 굳게 믿겠다"고 발원했다.

불교신문TV

더보기 >



포토뉴스



색선별 최신기사

불교신문TV

젊은

젊은 디자이너가

많이 본 기사

- 1 [원파스님의 해]
- 2 [삼보사찰 천리]
- 3 [삼보사찰 천리]
- 4 [삼보사찰 천리]
- 5 세종시 영평사
- 6 [삼보사찰 천리]
- 7 [삼보사찰 천리]
- 8 [삼보사찰 천리]
- 9 조계사 국화향
- 10 [삼보사찰 천리]



최신뉴스

- 젊은 디자이너가 아
- [말씀] 부처님께 구
- 선사는 하얀 은 주별
- [오심스님의 삼보사
- [삼보사찰 천리순례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이끄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보조국사 결사 정신을 이어 한국불교 근간을 계승하고 있는 송광사에 감사의 의미로 장군 죽비를 전달했다. 송광사 주지 자공스님이 송광사 대중을 대표해 죽비를 건네받았으며 순례단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격려를 약속했다.



상월선원 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있는 순례단 1조가 입재에 앞서 송광사 경내를 참배하고 있다.



회주 자승스님이 송광사 주지 자공스님에게 상월선원 결사의 상징인 장군 죽비를 전했다.

종단 "합법적 문화재 관람료 매도한 정청래 약...
 전국 조계종부신聯 '제1회 어린이 삼귀의계'...
 사회&국제 "故 변희수 하사 승소 환영...차별...
 인물 [인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대중공사 본격화되는 국보급 불상(佛像)의 환...
 수행&신행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① "말...
 문화 은은한 차함에 담긴 '조계사 예불소리'의 ...
 기획&연재 [보일스님이 들려주는 인공지능 아...
 출판&문학 조계종 초대종정 효봉스님의 '상당...
 학술&문화재 "이웃에게 큰마음 내는 게 수록...
 복지&상담 노인의날...7년 365일 내내 어르...

대한불교조가 불교전문사

www.

02)2

법공양 (기획PR)



부처님전에 천리순례 출발을 고하는 사부대중들.



순례단을 격려하기 위한 발길들. 종단 중직을 맡고 있는 스님들이 대거 참가하며 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천리순례 출발을 축하하는 송광사 방장 현봉스님. 순례단의 마음가짐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리고 있다.



10월1일 입재를 마친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송광사를 출발, 423km 대장정에 나선다. 순례단이 일주문을 벗어나 사성암으로 향하고 있다.

송광사 방장 현봉스님은 직접 법어를 내려 순례단의 마음가짐을 당부했다. 현봉스님은 “출재가가 함께 길에서 걷고 길에서 자는 이 어려운 순례 여정은 신심과 원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신심과 원력을 돈독히 하는 동시에 순례단의 걸음걸음에 마음을 챙겨 스스로를 반조하라”고 설했다. 부처님의 길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것 대신 스스로를 중심에 두는 대자유의 길을 따라가라는 의미다.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대한 불교계 안팎의 관심이 큰 만큼 이날 입재식에는 종단 중직을 맡고 있는 스님들도 대거 참석했다.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총찰 유나 현목스님 등 송광사 고승대덕 스님들이 전야제부터 격려 인사를 전했으며 걷기 순례에 동참의 마음을 전하고자 종단 중진 스님들도 입재식을 찾았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경우스님을 비롯한 14곳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정문스님,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범해스님 등 중앙총무기관 소임자 스님들도 자리를 빛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재가자와 지역 사회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입재 후 천리순례단은 송광사를 출발, 423km 대장정에 나섰다. 이슬을 맞으며 텐트에서 하룻밤을 지낸 순례단은 송광사 대웅전 앞에서 결집해 일주문을 벗어나 신흥리와 창촌리 등 약 22km 구간을 걷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마친다. 회주 자승스님을 필두로 8개 조가 1줄로 걸으며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걷는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총도감 호산스님은 “어렵게 마음 낸 만큼 전원 모두 무사히 완보하길 바랄 뿐”이라며 “오늘부터 시작된 천리순례가 회향하는 날까지 여여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십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길에서 1일차] 송광사에서 전남 곡성까지



송광사=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사진=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봉영 기자 | 이경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 ② 삼보의 의미를 다시 ...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백담사 예비순례 회향...발길 닿는...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 L 삼보사찰 순례 의미...상월결사의 '구법 행원'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① 함께 걷는 길, 자리...
- L [영상]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재식...한국불교 중흥...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4일차] 지리산 가거든...자승...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① 청대선사 깨달음 얻...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7일차] 조금만 더 가자...응원...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② 순례단 첫은 총무원...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① 비바람 불어도 꽃길...
- L 불교중흥 발원 특별 선사화전 열린다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한걸음 한걸음에 대자대비의 ...
- L 423km 삼보사찰 천리순례 '같이 걸을까?'
- L 불교중흥 위한 '불법승' 1000리길 구법순례 나선다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② 사찰 참배하며...무...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3일차] 안개 자욱한 섬진강 따...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5일차] 힘들어도 자비의 꽃은 ...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② 자승스님 실상사 참...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① 견디고 참고 기다리...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9일차] 가야산에 이르러 해안...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② '말과 평생 한번뿐...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 최신순 추천순

신문사소개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RSS

우)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견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 편집국 : 02-733-1604 | 구독문의 : 02-730-4488 | 광고문의 : 02-730-4490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2197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446 | 창간일 : 1960-01-01 | 등록일 : 1980-12-11

제호 : 불교신문 | 발행인 : 원행스님 | 편집인 : 헌법스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여태동

Copyright © by 불교신문. 기사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